



인천광역시  
<http://www.iclg.go.kr>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어우리의  
월미산모험





# 어우리의 월미산모험

*The Adventures of Mt. Wolmi by Eourl*





어머니나무  
(느티나무)

친구나무  
(상수리나무)

기억나무  
(은행나무)

향기나무  
(화백)

일어나나무  
(벚나무)

장군나무  
(소나무)

### 어우리를 소개합니다

모험 대장 다람쥐 어우리의 이름은 월미도의 의미를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월미도의 옛 이름 '월미도'는 물이 섞이는(어르는·휘감아 도는) 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미도가 가진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하고 과거와 미래가 희망찬 내일로 함께 어울려 걸어가자는 염원을 담아 어우리가 탄생했습니다.

### 월미공원 '월미 평화의 나무'

'월미 평화의 나무'는 인천상륙작전 이전부터 월미공원에 생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목을 발굴하여 수목을 통해 월미공원의 생태적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나무들이 보여주는 생생한 이야기와 함께 우리들의 교훈과 잠재력의 씨앗을 찾을 수 있도록 선정된 나무입니다.

<어우리의 월미산 모험>에서는 월미 평화의 나무 중 여섯 그루를 선정하여 재구성했습니다.





<책을 시작하며>

## 어울림, 함께 나아가는 월미도

어울미도, 얼미도, 얼도 ... 등 많은 이름으로 불려지다  
지금의 '월미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월미도는  
이름의 변화만큼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휴양과 생태문화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자리 잡아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월미도이지만 오래 전에는 임금님이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 임시로 머물렀던 행궁이 있었으며, 국내 3번째로 개항된  
제물포항의 길목에 위치하여 사람과 물자가 드나들었기에 외세의  
각축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서양 세계들로 인한 전쟁의 상흔이 멈추지 않았고  
6.25전쟁 때 인천상륙작전을 위한 포격으로 인한  
많은 주민들이 희생되었던 아픔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전쟁과 평화, 상처와 치유와 같이 아픔과 희망을  
함께 품어 온 월미도. 월미도의 옛 이름인 '얼미도'가 가진 '어르고  
사랑하다' '휘돌아 감싸다'라는 뜻처럼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울려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월미도의 역할이었나 봅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아갈 우리에게  
'어우리와 함께하는 월미산 모험'을 통해  
치유와 화합의 메시지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 Content

### 이야기 I 06

상수리나무와  
수다쟁이 다람쥐

### 이야기 II 12

아낌없이 내어주는  
어머니나무

### 이야기 III 22

다채로운 이야기가 있는  
향기나무

### 이야기 IV 34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는 일어나나무

### 이야기 V 46

싸움을 싫어하는  
장군나무

### 이야기 VI 58

모든 걸 품은  
기억나무

### 이야기 VII 72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친구나무



이야기 I

# 상수리나무와 수다쟁이 다람쥐





## 이야기 I

### 상수리나무와 수다쟁이 다람쥐

해님의 퇴근 시간. 하늘도 바다도 산도 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이 순간이 월미산 상수리나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월미산을 찾아왔던 사람들도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가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조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으면 무뚝뚝한 상수리나무도 슬쩍 미소를 짓게 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미소는커녕 노을에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몸을 애써 몸을 돌려가며 누군가를 찾느라 바쁩니다. 상수리나무는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안 보이네? 또 어디를 쏘다니는 거야? 그 녀석 참...”

그 녀석은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다람쥐랍니다. 언제부터인가 불쑥 나타나 재잘재잘 상수리나무를 귀찮게 굴기 시작했지요.

화려한 꽃이 피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산 중턱에 자리 잡아 쉬어가기 좋은 상수리나무는 평소에도 제법 손님이 있습니다. 한 동안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조용한 산이었지만 몇 년 전 길이 생기고 공원이 생기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상수리나무 바로 옆에 매점도 생기고 벤치도 생기면서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눈을 피해 찾아오는 동물 손님들도 많습니다. 특히 식탐 많은 다람쥐들에게 인기가 많지요. 상수리나무에는 월미숲에서 가장 맛있는 도토리가 열리니까요.

“이 녀석들아! 천천히 좀 먹어라!”

상수리나무는 허겁지겁 도토리를 집어먹는 다람쥐들을 보며 혀를 차고는 했습니다. 그 작은 몸에 얼마나 많은 도토리를 집어넣는지 저러다 볼이 터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녀석은 여느 다람쥐와는 달랐습니다. 입맛을 다시면서도 도토리를 집을 생각은 안하고 혼자 우물쭈물 눈치만 보고 있었지요.

“배 안 고프냐? 이리 와서 먹던지.”

상수리나무가 은근히 한마디를 던져주고 나서야 달려와 먹기 시작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나자 조르르 올라와 인사를 했지요.

다른 다람쥐들은 도토리를 먹고 인사도 없이 사라지기 바쁘는데 말입니다. 그 후로는 매일같이 노을이 질 때면 나타났습니다.



“상수리 아저씨! 있잖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렇게 밤이 깊도록 옆에 앉아 수다를 늘어놓았습니다. 상수리나무가 듣거나 말거나 쉬지를 않았지요. 덕분에 상수리나무는 월미산에서 일어나는 어지간한 일들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도토리보다 밤이 꿀맛이라느니 참새들끼리 사랑싸움이 났다느니 같은 작은 일까지 말이지요. 그러다 재미가 없어지면 상수리나무에게 이야기를 해달라며 조르고는 했습니다.

“매일 나만 얘기하니 재미없어요. 아저씨는 오늘 뭐 재밌는 일 없었어요?”

그럴 때면 상수리나무는 못들은 척 먼 곳만 보고는 했습니다. 꼬마 다람쥐가 아무리 졸라대도 말입니다.

“옛날이야기라도 좋아요. 아무 얘기나 좀 해보세요.”

다람쥐는 초롱초롱 눈을 빛내며 상수리나무를 바라보았지만 소용 없는 일이었지요. 원래도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상수리나무가 그중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 또 참지 못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저 혼자 하고는 했습니다. 제풀에 지쳐서 잠이 들 때까지 말이지요. 어느새 노을은 금빛을 지나 붉은빛으로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이 올 시간이 지나도 한참은 지나간 것이지요. 어쩌면 너무 멀리 나갔다가 길을 잃었는지도 모릅니다. 월미숲에 온지 얼마 안 된 녀석이니 그럴 법도 합니다.

‘길을 잃었나? 다른 데로 가버린 걸까? 잘됐지 뭐. 귀찮았는데.’

상수리나무는 신경질을 내듯이 툭툭 묵은 나뭇잎을 털어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도도하고 경쾌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지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수다쟁이 다람쥐의 발소리라는 것을 말이에요. 도도도하다가 주변을 두리번두리번하고 다시 도도도하고 달려오는 소리. 그 녀석입니다! 녀석은 전속력으로 달려와 상수리나무 위로 후다닥 올라왔어요.

“헉헉! 아저씨! 나 많이 기다렸어요?”

“기다리기는 무슨....”

상수리나무는 땡땡거리면서도 다람쥐 이마 위로 나뭇잎을 살짝 흔들어 주었습니다. 땀방울이 조금이라도 식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은 어디 멀리라도 다녀온 게냐?”

“네! 아주 멀리 멀리 다녀왔어요!”

다람쥐는 언제 빠졌냐는 듯이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2

# 아낌없이 내어주는 어머니나무





## 이야기 II

### 아낌없이 내어주는 어머니나무

다람쥐는 오늘도 월미숲 구석구석을 신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배가 고파져 도토리를 꺼냈는데 급한 마음에 서두르다가 그만 도토리를 놓치고 말았지요. 데굴데굴 굴러가는 도토리를 쫓아가던 다람쥐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우와!”

눈앞에 한눈에 보기에 오래 된 느티나무가 서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수리 아저씨보다 곱절은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나무였습니다. 느티나무는 눈을 감고 잠이 들어있었습니다. 무슨 좋은 꿈을 꾸는지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지요.

“할머니! 할머니! 느티나무 할머니!”

다람쥐의 외침에 느티나무 할머니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오호, 못 보던 꼬마 다람쥐네!”

단꿈을 방해 받고 눈살을 찌푸리던 할머니는 다람쥐의 귀여운 모습에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람쥐는 재빨리 느티나무 할머니를 타고 올라갔지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몇 살이세요?”

다람쥐가 귓가까지 올라가 물었지만 할머니는 잘 안 들리는지 고개를 갸웃거리기만 했습니다.

“몇 살이시냐고요! 할머니가 이 숲에서 제일 나이가 많죠?”

다람쥐가 한껏 목소리를 높이고 나서야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제일 나이가 많지. 이백사십 아니 오십... 몇 살이더라? 아마 이백오십 살 쯤 됐을 거야. 나는 옛날에 이 땅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부터, 그리고 이 근처에 월미행궁이라는 궁궐이 있었을 때부터 살았단다. 아주 작고 낮은 궁이었지만 말이야.”

“우와! 그러면 임금님도 보았어요?”

느티나무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임금님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단다. 내가 태어났을 때 월미행궁은 이미 폐허가 되다시피 했었지. 주변 어른들에게 듣기를 아주 아름다웠다고 하던데… 지금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

“왜 그렇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임금님은 왜 오지 않으셨어요?”

“평화로웠기 때문이지. 월미행궁을 지은 것은 병자호란이라는 아주 큰 전쟁이 있고 얼마 후였단다.”

“병자호란이요?”

“북쪽에서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난리가 났었지. 임금님은 월미도 근처의 강화도로 피난을 가려고 했어. 그런데 적들이 도망갈 길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남한산성에 갇혀서 항복을 하게 되었단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곳에 피난할 때 쓸 궁을 지은 것이지. 그런데 정작 궁을 짓고 나서는 백년이 넘도록 평화가 계속되어서 임금님이 피난 올 일이 없어진 거지.”

“월미행궁을 쓸 일이 없었던 게 좋은 거였네요?”

다람쥐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옛 생각에 빠진 할머니는 좋은 꿈이라도 꾸듯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좋은 시절이었어. 그때 만해도 월미도는 아주 작고 평화로운

어촌마을이었지. 월미도 앞바다를 통하면 서울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배들은 종종 다녔지만 그저 지나갈 뿐 이 섬까지 찾아오는 이들은 드물었어. 덕분에 나는 아무 걱정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며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었단다. 이상하게 생긴 배가 바다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느티나무 할머니의 얼굴이 어딘지 쓸쓸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다람쥐는 그 뒤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영 이야기를 이어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람쥐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배가 바다에 나타나고 나서요? 어떻게 됐는데요? 마저 이야기 해주세요.”

생각에 빠져있던 어머니나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 내가 무슨 얘기를 했더라?”

“이상한 배가 바다에 나타났다고요.”

꼬마 다람쥐의 말에 할머니는 다시 옛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아, 그래. 가만 있어보자. 그러니까 내가 백 살 쯤 됐을 때었지. 이상하게 생긴 배들이 저 멀리 바다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단다. 배에는 얼굴은 하얗고 눈은 파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 덕분에 조용하던 월미도가 수군거렸지. 그러던 어느 날 프랑스 사



람들이 나타나서는 월미도에다 배를 대고는 근처를 돌아다니는 거야. 어딘지 좀 수상하긴 했지만 왔다 갔다 하다가 사라지기에 별일 아니라 생각했지.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강화도 쪽에서 대포 소리가 들리면서 병인양요가 일어난 거야.”

“대포요? 그때 그렇게 큰 상처가 생긴 거예요?”

다람쥐는 할머니의 아래 등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느티나무 할머니의 밑동에는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그 뒤에 있었던 전쟁 때문이란단다. 그때는 대포알이 여기까지 날아오지는 않았어. 하늘도 땅도 흔들릴 정도로 시끄럽긴 했지만 말이야. 프랑스인들은 강화도에 한 달이나 눌러앉아서는 갖가지 보물과 책들을 훔치고 마지막엔 불까지 지르고 도망갔지. 그때 그 프랑스군을 이끌던 사람의 이름이 로즈였는데, 월미도에 멋대로 로즈섬이란 이름까지 붙였단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한 동안 월미도를 로즈섬이라고 부르기도 했지.”

“프랑스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다람쥐는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느티나무 할머니도 어깨를 으쓱거리듯이 가지를 들썩이며 말했습니다.

“글쎄다. 인간들의 이야기까지야 나는 잘 모르지만… 프랑스 신부들이 조선에 와서 포교 활동을 하다가 죽임을 당해서 복수를 하

려고 했다는데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을 거야. 암튼 그 뒤에도 이상한 배들은 계속해서 왔어. 그러다 미국 사람들이 와서 신미양요를 일으켰지. 교역도 하고 친구가 되려고 왔다는데… 어떻게 된 건지 또 대포 소리가 들리더구나.”

“왜 친구가 되자면서 대포를 싸요? 이상해요.”

다람쥐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하자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 다람쥐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오랜 세월의 흐름을 건디느라 거북이 등처럼 꺼칠 꺼칠했지만 따듯했습니다.

“그때 조선은 다른 나라와는 친구를 할 생각이 없었단다. 그래서 거부를 하고 문을 닫고 있으니깐 대포를 써서라도 억지로 문을 열려고 했던 거지. 그 뒤에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이상한 배들은 계속 왔고, 대포소리는 점점 커졌단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문을 열고 말았지.”

“눈이 파란 사람들에게요?”

“아니. 처음엔 바다 건너 우리와 똑같이 생긴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었지. 그 후 미국, 영국 등 여러 나라에 문을 열게 되었단다. 그리고 엄청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지.”  
호기심 많은 다람쥐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재촉했습니다.

“왜요? 어떻게 변했는데요?”

대답을 들을 틈도 없이 무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다람쥐는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새들이 한 마리도 아니고 일곱 마리나 나타나 다람쥐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그 중에도 덩치가 제일 큰 딱따구리가 욱박지르듯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주변을 돌아보니 느티나무의 굵은 가지 곳곳에 새들이 둥지를 틀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화를 내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다람쥐는 자신들의 집에 멋대로 쳐들어온 불청객이었으니까요. 새들은 당장이라도 다람쥐를 공격할 것처럼 눈을 부라렸습니다. 큰 새들 몇은 다람쥐를 보고 군침까지 삼키고 있었지요.

“어허! 봐둬라. 아직 어린 다람쥐가 아니니.”

할머니의 한마디에 새들은 입을 삐죽거리며 둥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한 목소리로 새들을 꾸짖던 느티나무가 다람쥐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꼬마야. 이만 가보는 게 좋겠구나. 올빼미가 잠에서 깨면 큰일이야. 그 녀석은 낮잠을 방해하는 걸 아주 싫어하거든. 네가 다칠까 봐 걱정이되는구나”

다람쥐는 주눅이 든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꼬마 다람쥐가 들려준 이야기랍니다. 마침내 이야기가 끝나자 가만히 듣고만 있던 상수리나무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나무가 아직 살아있었구나.”

“어머니나무요?”

“월미숲 구석 어딘가에 그런 나무가 있단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 아주 오래 된 나무인데 새들이고 벌레들이고 누구에게나 가지를 내어준다고 말이야. 아직까지 살아있는 줄은 몰랐네.”

느티나무는 상수리 아저씨의 말대로 월미숲의 새들이나 벌레들에게 어머니나무나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크고 튼튼한 가지와 비를 피할 수 있는 넓은 이파리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무는 많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나무. 참 좋은 이름이에요.”

다람쥐는 상수리나무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야기 3

다채로운 이야기가 있는  
향기나무



### 이야기 III

## 다채로운 이야기가 있는 향기나무

“이 녀석! 당장 내려오지 못해? 으하하하!”

아침부터 상수리나무의 화난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분명히 화가 난 것 같긴 한데, 웃음소리가 섞여 있어서 괴상한 목소리였습니다. 다람쥐가 상수리 아저씨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지들이 부러질까 걱정도 되었지만,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건 다람쥐의 작은 발가락이 움지락 거릴 때마다 느껴지는 간지러움이었습니다. 다람쥐는 상수리가 소리를 지르거나 말거나 여기 저기 냄새를 맡느라 바빴습니다.

“아저씨! 정말 향기나무에 대해 들어본 적 없으세요?”

“글쎄, 모른다고 하잖아.”

“분명히 어머니나무가 월미숲 어딘가에 있다고 했는데…”

며칠 전 다람쥐가 느티나무와 한참 이야기를 하다 말고 아쉽게 발길을 돌리려고 할 때였습니다. 느티나무가 귓속말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 자세한 것은 기억하지 못한단다. 뒷이야기는 다른 나무에게 물어보렴. 월미숲에서 가장 향이 좋은 나무를 찾아봐.”

그래서 다람쥐는 어제든 오늘도 벌써 며칠째 향기나무를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맺고 나서 이 땅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뒷이야기가 궁금해죽을 지경이었지요. 상수리 아저씨에게도 물어보았지만 몰라 모른다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저씨 머리 위로 올라와 어디서 좋은 향기가 나는지 찾고 있는 거랍니다.

“너 당장 안 내려오면 다시는 도토리 안 줄줄 알아!”

‘아, 그건 안 되는데.’

다람쥐가 허둥지둥 내려오려고 할 때, 숲 아래 어디선가 화아악하고 산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연신 코를 벌름거리고 있던 다람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저기다! 저기야!”

아주 기분 좋은 냄새였습니다. 꽃냄새처럼 강한 냄새는 아니지만 은은하고 기분 좋은 냄새. 어머니 나무가 말하던 월미숲에서 가장 향기가 좋은 나무가 분명했습니다. 다람쥐는 쾅쾅 달려 내려와 바람이 불어왔던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아! 뛰지 말고 천천히 가!”

상수리나무는 뛰어가는 다람쥐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분명 이쯤 어디인데?’

다람쥐는 눈을 감고 코를 벌름거리며 향기에 집중했습니다. 눈을 감자 향기가 더 잘 느껴졌습니다. 다람쥐는 향기가 나는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향기가 나는 쪽을 향해서 조심스럽게 걸어가 기 시작했지요. 향기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분명 여기 어딘데... 월미숲에서 가장 좋은 향기가 나는 나무가 여기 어디에 있을 텐데... 아이쿠!”

다람쥐는 어딘가에 이마를 그만 콩하고 짝고 말았습니다.

“누가 나를 찾니?”

머리 위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번쩍하고 눈을 떠보니 다람쥐의 앞에는 어디가 얼굴인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키가 큰 나무가 서있었습니다. 그 기분 좋은 냄새의 주인공이지요.

“내가 바로 월미숲에서 가장 좋은 향기가 나는 화백나무란다.”  
화백나무가 말을 할 때마다 향기가 가득한 공기방울이 터지는 것처럼 좋은 향이 났습니다. 다람쥐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향기나무님! 듣던 대로 아주 좋은 향기가 나네요!”

“향기나무? 네가 지은 이름이니? 아주 마음에 드는 걸!”

향기나무는 껄껄대며 웃었습니다. 향기나무의 나이는 상수리나무와 비슷해보였지만 성격은 영 판판이었습니다. 무뚝뚝한 상수리와는 달리 말도 잘하고 상냥했습니다. 상수리나무는 매일 심술만 부리는데 말입니다.

다른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서있기만 해도 아주 기분 좋은 향이 몸에서 흘러나왔고 키도 무척 컸습니다. 아마 월미숲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일 겁니다. 다람쥐가 더 가까이서 이야기를 하려고 쭈르르 위로 올라오는데도 한참이 걸렸지요.

가만 보니 껍질이나 가지 모양도 어딘가 다른 나무들과는 달라보였습니다. 화백나무라는 이름도 낯설고 주변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무였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두리번거리는 다람쥐의 모습에 향기나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서 왔단다.”

“다른 나라면… 일본이요?”

한 번에 정답을 말하니 향기나무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람쥐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일본은 어때요? 거기도 이곳과 비슷한가요?”

“글쎄.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니 비슷하겠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나는 아주 어릴 때에 이 땅에 왔단다. 눈을 떴을 때부터 나는 이곳 월미산의 나무였어.”

향기나무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된 걸까? 그것은 자신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인천에 자리 잡으면서 씨앗이 달려오게 된 것인지, 어떤 일본인이 고향 생각을 하며 이곳에 심은 것인지, 아니면 조선인이 그저 향이 좋아 옮겨 심었는지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찾아 왔니? 나는 상수리나무나 밤나무처럼 맛있는 열매도 없는데 말이야?”

향기나무의 말에 다람쥐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나무와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어머니나무? 아, 그 느티나무 할머니의 이름이구나.”

화백나무는 다시 한 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어머니나무가 강화도 조약 후에 이 땅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뒷이야기는 아저씨가 더 잘 이야기해줄 거라고 했어요.”

향기나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만큼 그 후의 일을 잘 기억하고 있는 나무는 없을 거야. 강화도 조약이 없었다면 나도 이곳에 오지 않았을 테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건물도 많이 생기고 많은 것들이 변했지.”

“그전에는 그저 조용한 바닷가 마을이었다고 하던데요?”

“그랬다더구나. 강화도조약을 시작으로 여러 나라와 조약이 맺어지고 문이 열리면서 월미도는 아주 중요한 곳이 되어버렸지. 사람들이 이곳에 배를 대고 물건을 내렸으니까. 특히 많은 일본 사람들이 이곳에 여러 건물을 짓고 살았지. 원래 살던 사람들을 구석으로 내몰고 집이나 석탄창고 같은 것들을 짓고 말이야.”

“남의 땅을 그렇게 마음대로 빼앗아도 된단 말이에요?”

다람쥐는 이해가 가지 않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향기나무도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란다. 힘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조선은 일본에게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고 말았지. 일본은 월미도를 풍치지구로 지정하고는 유원지로 만들기 시작했어. 월미도는 원래부터 풍경이

아름다운 데다가 일본인들이 벚나무를 많이 심으면서 봄이면 벚꽃놀이 명소로 인기가 많았거든. 그래서 일본은 이곳에 유원지를 만들어 돈을 벌 생각을 한 것이야. 해수욕장도 만들고 바닷물을 끓여서 조탕이라는 목욕탕도 만들고 식당과 호텔도 많이 지었단다. 그 중에는 용궁각이라는 호텔이 있었는데, 바닷물이 밀려들어 올 때면 마치 물 위에 떠있는 것처럼 멋진 곳이었지.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왔는지 몰라. 인천은 몰라도 월미도는 안다는 말이 돌 정도였지.”

향기나무의 말을 들으니 마치 그 시절이 그림처럼 눈에 펼쳐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나무의 쓸쓸하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람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좋게 변한 거 아닌가요?”

“글쎄. 화려한 시절이긴 했지. 하지만 바다에서는 이 나라 저 나라 배들끼리 싸움이 나서 대포를 쏘기 일쑤였고 배가 침몰하기도 했단다.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했을 때는 아주 커다란 군함들이 불타버렸지.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는 더 살기가 힘들어졌어. 하루하루 사람들의 얼굴도 슬퍼지고 가난한 사람들도 늘어났고 말이야. 독립운동을 하다가 끌려가는 사람들도 많았단다.” 옛 생각에 잠긴 향기나무의 얼굴이 어머니나무가 그랬던 것처럼 쓸쓸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일본이 다른 나라들과 큰 전쟁을 시작하자 더 큰 고통이 시작됐지. 사람들이 전쟁터로 끌려갔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나무들의 열매들은 물론이고 껍질까지 벗겨가고는 했단다. 그래서 일본이 물러갈 때 모두가 기뻐했지. 하지만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진 않았어.”

향기나무의 얼굴은 괴로워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웃고 있던 향기나무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다람쥐의 마음도 아파왔습니다.

“그 후에도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 많았단다. 그리고 한동안은 아무도 이곳을 찾지 않았지. 그래도 요즘은 다시 사람들이 와서 좋아. 언젠가는 그때처럼 다시 이곳이 복적거릴 때가 올 거야.”

향기나무의 얼굴이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다람쥐의 마음도 덩달아 훈훈해졌습니다

“아저씨는 참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요. 상수리 아저씨는 매일 심술만 부리는데.”

“예전에 나만 할까? 나야말로 어릴 땐 정말 심술나무였지. 나무들이고 동물들이고 다 싫어했단다. 내가 너무 작고 약했기 때문에 모두가 날 괴롭히는 것만 같았거든.”

“정말요? 지금은 이렇게 크고 멋진 나무가 됐는데요?”

다람쥐의 말에 향기나무는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정말이야. 나는 너무 작아서, 햇빛을 보려면 한참이나 깡깡대야만 했거든. 그래서 주변의 나무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나무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야. 다른 나무들이 없으니 나는 무섭게 자라났단다. 그런데 이 숲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되어버리고 나니까, 무척 외롭더구나.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얘기도 못하니까 말이야. 그래서 난 더 이상 자라지 않았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듣던 다람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갑자기 나무들이 왜 사라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 얘긴 하고 싶지가 않구나.”

향기나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향기조차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람쥐는 한동안 나무의 곁에 가만히 머물러 주었습니다. 상수리나무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해주듯이 말입니다.



이야기 4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는  
일어나나무





#### 이야기 IV

###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는 일어나나무

“딱따구리야! 꼬마 다람쥐 못 봤니?”

상수리나무가 가지에 앉은 딱따구리에게 물었습니다. 딱따구리는 딱딱거리며 나무 속 벌레를 찾느라 정신이 없어 그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다람쥐요? 다람쥐야 많이 봤죠.”

“아니. 왜 말 많고 이야기 좋아하는 꼬마 다람쥐 말이야.”

“어디 또 쏘다니고 있겠죠. 아주 온 산을 헤집고 다니잖아요.”

딱따구리의 말에 상수리나무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 맘 때면 배가고파서라도 오는데 말이야. 곧 해가 질 텐데 돌아오지를 않는 구나.”

딱따구리는 방금 나무속에서 꺼낸 벌레를 한입에 꿀꺽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흥! 고 귀찮은 녀석 밤까지 돌아 댕기다가 올빼미한테 확 잡아먹혔으면 좋겠네.”

“뭐야? 저는 맨날 나무에 구멍이나 내면서!”

상수리는 딱따구리의 심술궂은 소리에 버럭했습니다. 딱따구리는 눈을 삐죽하고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내가 어제 괜한 소리를 해서…”

상수리나무는 어젯밤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항상 제 얘기만 늘어놓느라 바빴던 녀석이 어제는 좀 달랐습니다. 어젯밤 다람쥐는 향기나무의 이야기를 한참을 늘어놓고 나더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머뭇거리더니 상수리나무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그 뿌리의 흉터는요? 그건 어쩌다 생긴 거예요?”

그건 또 언제 봤나 상수리나무는 혀를 찼습니다. 하긴 도토리를 묻는다고 땅을 죄다 파놓은 녀석이니 모르는 게 이상한 일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구나.”

“오래된 일이라서요? 아저씨는 몇 살이에요? 이름은 있어요?”

다람쥐는 질문을 퍼부었지만 상수리나무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약이 오른 녀석은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헛. 귀찮아서 그러지요? 나 아저씨 이름 알아요. 아저씨는 심술 나무예요. 아마 월미숲에서 가장 심술쟁이일걸요!”

“그래! 나는 심술나무다! 귀찮게 굴 것이면 다시는 찾아오지마!”

상수리나무는 자기도 모르게 버럭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나무에게는 어머니나무니, 향기나무니 좋은 이름을 불러주면서 매일 도토리를 나눠주고 잘 자리를 내어주는 자기에게는 심술나무라니. 못된 녀석. 상수리나무는 다람쥐가 상처받은 것이 느껴졌지만 알미운 마음이 들어 모르는 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젯밤의 일이었습니다.

‘아침엔 인사도 안하고 사라지고... 정말 어디로 가버리기라도 한 걸까? 벌써 밤이 되었는데...’

어젯밤 일을 생각하는 사이, 주변은 까맣게 어두워지고 달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달님!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니겠지요?”

답답한 마음에 달님에게 말을 건네 보았지만 달님은 오늘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달님은 항상 말이 없지요. 귀찮아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상수리나무가 이야기를 안 한 것도 귀찮아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꼬마 다람쥐가 듣기에는 너무 슬픈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몰랐으면 했답니다.

‘달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심술부리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상수리나무의 마음 속 소리를 듣기라도 한 걸까요. 도도도하고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폭하고 안겨오는 다람쥐에게는 향긋한 꽃향기가 풍겨왔습니다.

“월미숲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찾느라 늦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꽃?”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다람쥐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람쥐는 오늘 아침, 아니 아침이 되기도 전에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상수리 아저씨에게 인사도 없이 나온 건 심술이 나서서 아니었습니다. 얼굴을 보기가 어색하기도 하고 마음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다툼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나니 자기가 너무 버릇없이 굴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미숲 구석구석을 뒤져서 가장 아

름다운 꽃을 찾기로 마음먹었지요. 예쁜 꽃 냄새를 맡으면 상수리  
아저씨도 화가 풀릴 테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가보지 못한 먼 곳까지 가볼 생각으로 일찍 길을  
나섰지요. 뛰다가 지치면 잠시 쉬며 도토리를 하나 까먹었습니다.  
달리고 먹고 달리고 먹고 하나, 둘 도토리를 까먹고 세 번째 도토  
리를 까먹으려고 멈췄을 때 다람쥐가 외쳤습니다.

“찾았다!”

벚꽃 동산이었습니다. 눈앞에 끝도 없는 벚꽃길이 펼쳐져 있었습  
니다. 곳곳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들이 서로 자기가 제일 이쁘다며 뽐을 내고 있었지요. 다람쥐  
는 냉큼 꽃나무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꽃 한 송이만...”

“흥! 싫어!”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리가! 내가 얼마나 힘들게 피운 꽃인데.”

이 나무 저 나무 다 찾아가보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지마다  
예쁜 꽃이 가득했지만 선뜻 내어주는 나무는 없었습니다. 그때 누  
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다람쥐야! 꼬마 다람쥐야! 이리 와보렴!”

벚꽃동산 귀퉁이에 오래된 벚꽃나무 아주머니였습니다. 다람쥐  
는 신이 나서 달려갔습니다.

“꽃이 필요하니? 그럼 내 것을 가져가렴.”

아주머니의 가지에도 탐스러운 꽃들이 달려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쁜 꽃과 달리 몸통은 까맣고 거칠었습니다. 가운데 몸통은 오래  
전에 잘려 나가고 없었고, 그 옆으로 새로 난 가지들이 오랜 세월  
힘들게 다시 자라나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원래 있던 몸통에는  
툭 튀어나온 썩은 가지가 남아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럼 괜찮고말고.”

“아깝지 않으세요? 힘들게 피우신 꽃 같은데...”

다람쥐는 어쩐지 미안한 마음이 들어 선뜻 꽃으로 손이 가지 않았  
습니다. 벚꽃나무 아주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에 저기 저 젊은 나무들처럼 남들에게 꽃을 주는 것을  
아까워했단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아주머니는 다람쥐를 꼭 안아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전부터 이 숲은 화려한 벚꽃으로 이름이 높았지. 봄이면 전국



에서 꽃구경을 오고는 했어. 일본이 물러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나무들은 광복을 축하하듯 더욱 화려하게 꽃을 피웠어. 나는 그때 꼬마나무였지만 아주 예쁜 꽃을 피웠지.”  
옛 생각에 벚꽃나무의 얼굴이 발그레하게 붉어졌습니다. 다람쥐는 향기나무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아는 척을 하고 싶었지만, 벚꽃나무의 얼굴이 행복해보여서 한번 꺾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꼬마가 나를 보고 너무 예쁘다고 소리쳤어. 그러면서 가지로 손을 뻗는 게 아니겠어? 그런데 난 꽃이 아까운 생각이 든 나머지 손이 닿지 않게 가지를 슬쩍 들어버렸지. 실망하는 모습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어 속으로 내년엔 줄게라고 약속했지. 꼬마는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빙그레 웃었어.”  
이야기 중간에 끼어들기 일쑤인 다람쥐지만 오늘은 어쩔 계속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질문할 생각도 들지 않을 만큼 점점 아주머니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전쟁이 나고 만 거야.”

“전쟁이요?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온 건가요?”

“아니. 우리 민족끼리 전쟁이 난 거란다.”

“왜요?”

다람쥐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물러나고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게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또 어쩌다 전쟁까지 하게 되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구나. 너무 어리기도 했고…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서 불에 덴 것처럼 아프고 괴로웠던 기억만 남은 걸.”

아주머니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아픔만은 아직도 또렷했으니까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큰 전쟁이 났던 것만은 분명해. 며칠을 끔غم 아파하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주변엔 멀쩡한 나무가 한 그루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

주변의 나무들이 모두 부러지거나 뽑히거나 불에 타버린 채였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그대로 생명을 다하고 말았지요. 벚꽃 아주머니가 살아남은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몸통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는데도 살아났으니까요.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우고 꽃을 필 수 있을 때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벚꽃나무의 얘기를 들은 다람쥐도 아픔이 느껴지는 것 같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떻게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었어요? 아프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다시 꽃을 피우고 싶었다. 꼬마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거든. 빙그레 웃던 꼬마의 얼굴을 생각하니 아픔도 참을 수 있었어. 열심히 뿌리로 힘을 모아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였지. 그러자 부러진 몸통 옆으로 새로운 가지들이 나기 시작했어. 그 후로 다시 꼬마는 만나지 못했지만 대신 다른 이들에게 꽃을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됐단다. 그러니 내 꽃을 받아주겠니?”  
벚꽃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다람쥐는 뽕뽕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충분히 예쁘지 않니?”

아주머니는 실망한 얼굴로 다람쥐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람쥐는 아까보다 더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아줌마가 월미숲에서 가장 예쁜 나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꽃은 이미 받았는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꽃이요.”

다람쥐의 말에 벚꽃나무는 환하게 웃음꽃을 터뜨렸습니다.

“어때요? 아저씨?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꽃이지요?”

득의양양하게 웃는 다람쥐의 얼굴에 상수리나무도 피식하고 웃음꽃을 터뜨렸습니다.

“아름다운 꽃에 대한 보답으로 이름도 지어드렸어요. 아주머니 이름은 일어나나무예요.”

“일어나나무? 좋은 이름이구나.”

상수리나무는 다람쥐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습니다.

“아저씨 이름도 멋지게 지어드릴게요. 심술나무는 취소예요!”

상수리는 기분이 좋았지만 어색해서 못들은 척했습니다. 다람쥐도 상수리가 못들은 척하는 것을 모르는 척 했지요. 다람쥐와 상수리나무는 언제 싸웠냐는 듯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야기 5

# 싸움을 싫어하는 장군나무



## 이야기 V

### 싸움을 싫어하는 장군나무

어느새 꽃들이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워지더니 여름이 왔습니다. 어린 나무들은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했고 꼬마 다람쥐도 조금 키가 자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작은 꼬마 다람쥐였고 이야기를 좋아했고 여기 저기 쏘다니기를 좋아했지요.

오늘도 다람쥐는 신나게 여기 저기 쏘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소나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나기는 금방 그쳤지만, 이러 저리 비를 피해 도망치다 보니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진짜 큰일인데…”

길을 잃은 것은 그렇게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이니까

요. 물어 물어 찾아가면 되는 일이지요. 배가 고픈 게 진짜 큰일이었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상수리나무도 밤나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눈앞에 굴러다니는 솔방울이 보였습니다. 다람쥐는 신이 나서 솔방울에 달려들었습니다. 솔방울은 딱딱하지만 조금만 씹아먹으면 맛있는 씨앗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누구나? 손들어!”

갑자기 찌렁찌렁 울리는 소리에 다람쥐는 깜짝 놀라 솔방울을 떨어트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번쩍 들었지요.

“네 이놈! 허락도 없이 솔방울을 먹다니!”

소리가 나는 곳을 올려다보니 덩치도 크고 무섭게 생긴 소나무가 다람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배가고파서요.”

다람쥐는 주눅이 들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소나무는 봐주지 않았습니다. 더 큰 소리로 혼을 냈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다람쥐는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툭툭대면서도 아낌없이 도토리를 내어주는 상수리 아저씨가 보고 싶었지



요. 하지만 다람쥐는 얼마 못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잡았다!”

다람쥐의 등허리 위로 묵직한 발이 느껴졌습니다. 소나무는 아니었습니다. 소나무는 발이 없으니까요. 다람쥐가 간신히 고개를 돌려보니 얼룩덜룩 고양이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산에 사는 고양이들은 다람쥐를 아주 좋아합니다. 친구로서가 아니라 먹잇감으로 말입니다. 다람쥐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으악! 살려주세요!”

“아주 맛있게 생긴 녀석이네. 바로 먹어줄까 조금 가지고 놀다가 먹어줄까?”

고양이는 끄끽거리며 웃어댔습니다. 다람쥐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양이가 커다란 입을 벌려서 다람쥐를 꿀꺽 하려는 순간!

“네 이놈! 당장 그 입 다물라!”

버럭버럭 소리에 고양이는 그만 깜짝 놀라 다람쥐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람쥐는 재빨리 숲 속으로 도망쳤지요.

“감히 내 땅에서 싸움을 하다니!”

아까 솔방울을 먹는다고 혼을 내던 소나무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무섭게 혼을 내더니 지금은 또 고양이한테서 구해주고 이상한 나무였습니다.

“흥! 남이사 싸움을 하든 말든 뭐 상관이란. 카아악!”

고양이는 털을 세우며 소나무에게 대들었습니다.

“이런 못된 고양이 녀석! 어디 솔방울 폭탄 맛 좀 볼 테냐?”

소나무가 몸을 움찔하자 솔방울 하나가 퍽하고 날라 왔습니다. 바로 고양이의 발밑으로 떨어졌지요. 솔방울은 작지만 아주 단단해서 맞으면 무척 아프답니다. 소나무는 무서운 목소리로 고양이에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번 건 경고였어. 다음 솔방울은 경고로 끝나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해!”

“두고 보자! 야옹!”

고양이는 씩씩거리며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자 숨어있던 다람쥐가 쏙고개를 내밀었지요. 소나무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딱히 널 구해주려고 한 건 아니야. 나는 싸움을 세상에서 제일 싫

어하니까. 특히 내가 있는 땅에서 싸움을 하는 건 질색이야.”  
무뚝뚝한 소나무의 말에 다람쥐는 빙긋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서운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아주 좋은 할아버지였구나!”

“할아버지라니! 난 그렇게 늙지 않았다고!”

소나무가 또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 보니 상수리 아저씨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아저씨라고 부르기엔 뭔가 부족해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멋있고 목소리는 찌렁찌렁, 마치 산을 지키는 것처럼 밑을 굽어보고 있고, 몸에는 옛날 갑옷처럼 생긴 껍데기들이 촘촘하게 붙어있고… 찬찬히 소나무를 살펴보면 다람쥐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소나무에게 아주 딱 맞는 이름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장군님이라고 부를게요.”

“어허. 이 녀석 어떻게 내 별명을 알았지? 사람들은 날 보고 장군나무라고 부른단다.”

다람쥐는 소나무와 함께 웃다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장군님이면 싸움을 좋아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이 세상에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느냐? 전쟁을 겪어본 사

람이라면 절대로 그걸 좋아할 수 없지.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야.”  
장군나무는 몸서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장군님은 이곳에 전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무들의 몸통이며 뿌리에 상처가 남은 걸 보면, 분명 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장군나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럴 거야. 하지만 그런 일일수록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지.”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해주세요.”

장군나무는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던 것은 알고 있지? 북한의 기습공격에 남한은 기운 한번 써보지 못하고 밀리기 시작했단다. 며칠 만에 거의 모든 땅을 잃고 말았지. 이 월미도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맥아더 장군이 나타난 거야.”

“맥아더 장군이요? 성이 맥이고 이름이 아더예요?”

참 이상한 이름이란 생각에 다람쥐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아니. 맥아더 장군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란다. 미국의 장군이었지. 그 전쟁은 단순히 남한과 북한 간의 싸움이 아니었어. 전 세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전쟁이었지.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 전쟁에 참여했던 거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걸까? 다람쥐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전 세계 사람들이 편을 나누어 전쟁을 하게 되고… 인간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 아까 고양이에게 잡혔을 때 바로 포기했지? 맥아더 장군은 그렇지 않았어. 아주 용감했고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지.”

다람쥐는 어쩐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쟁은 이미 북한의 승리로 끝난 것처럼 보였단다. 하지만 장군은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위험한 작전을 밀어붙였어. 그게 바로 인천상륙작전이었던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그 작전은 성공했지.”

“그럼 잘 된 거 아닌가요?”

“잘 됐지.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전세가 완전히 뒤집혔어. 남한이 쫓아가고 북한이 도망가는 판이 되어버린 거지. 그래서 간신히 전쟁을 끝낼 수 있었던단다. 하지만…”

열을 내며 전쟁얘기를 하던 장군나무의 얼굴이 갑자기 어둡게 변해버렸습니다. 향기나무나 벚나무가 옛일을 생각했을 때처럼, 상수리나무가 뿌리에 난 상처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 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장군나무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던단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지. 나무도, 동물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이 죽어버렸어. 인천상륙작전의 무대가 된 이 월미숲은 상태가 더 심각했던단다. 인천에 상륙하기 위해서는 월미도에 있는 북한군을 반드시 물리쳐야 했지. 그래서 이곳에 엄청난 양의 폭탄을 쏟아 부었지. 거의 대부분의 나무들이 죽음을 맞이했어.”

그리고 보니 장군나무의 몸에도 총탄 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한때는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앞 다투어 나들이를 올 정도로 아름다웠고 화려했던 이 땅이, 전쟁이 지나가고 나자 폐허나 마찬가지였던단다. 산은 민둥산이 되어버리고 마을도 사라졌지.”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제까지 나무들이 했던 이야기나, 쓸쓸했던 표정들이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에는 군인들이 이곳에 주둔하면서 사람들의 발길을 막아버렸어. 그래서 월미산은 마치 섬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지. 군인들이 이곳을 떠날 때까지 말이야.”

그때 다람쥐는 일어나나무가 기다리던 꼬마가 생각났습니다.



“장군님! 마을 사람들은요? 마을 사람들은 돌아왔나요?”

“췌! 노을이 지는구나.”

장군나무가 다람쥐에게 조용히 하라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저 멀리 노을이 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장군나무가 마치 경례라도 하듯이 해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모른다. 저기 아래에 사는 은행나무에게 물어보렴. 그곳에 모든 걸 기억하는 은행나무가 있다 더구나. 오늘은 노을이 더 아름답지 않니?”

노을을 바라보던 장군나무가 빙그레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을을 보고 있으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평화롭게 지나갔단 생각에 안도감이 든다. 지금도 어디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기라도 하면 또 전쟁이 나는 게 아닐까 무서운 마음이 들곤 하거든.”

다람쥐는 이제야 노을을 바라보는 상수리 아저씨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장군님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상수리 아저씨에게 장군나무의 이야기를 해주고도 싶었지만, 같이 노을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6

모든 걸 품은  
기억나무



## 모든 걸 품은 기억나무

어느덧 월미산에 가을이 왔습니다. 나무들은 부지런히 울긋불긋한 가을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찬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인지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다람쥐는 서둘러 아침을 먹고는 길을 나섭니다. 겨울잠을 잘 동안 먹으려면 아주 많은 먹이를 모아야 하는데, 이 근처는 벌써 먹이가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 멀리 멀리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멀리 멀리 가도 먹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다람쥐들이 벌써 다 집어가고 만 것이지요. 조금만 더 가볼까? 조금 조금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 다람쥐는 어느새 사람들이 사는 곳 근처, 산 아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다람쥐는 숲 입구까지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차들이 다니는 도로 너머로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이킹이나 디스코 같은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재미있어서 소리를 지르는 건지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숲과 도로 사이에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큰 공원이 있었습니다. 공원 입구에는 노란 은행나무들이 줄을 지어 서있었습니다.

“우와! 저 나무는 정말 멋진 걸!”

다람쥐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많은 은행나무 중에도 정말 눈에 확 들어오는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냥 노란 은행나무가 아니라 아주 노오란 은행나무였습니다.

‘소나무 아저씨가 말했던 그 은행나무가 아닐까?’

마을 사람들의 일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던 은행나무. 다람쥐는 모든 것을 기억하는 기억나무라고 이름을 지어두고 몇 번이나 찾아보았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람쥐는 반가운 마음에 쭉쭉 은행나무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빠르게 달려가지는 못했습니다. 공원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단풍구경을 하고 있어서 요리조리 잘 피해서 가야했으니까요.

마침내 노란 은행나무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몸통도 아주 두껍고 가지도 많고 잎도 많은 것이 백 살은 되어보였지요.



“안녕하세요! 은행나무님!”

하지만 나무는 말이 없었습니다. 혹시 어머니나무가 그랬던 것처럼 잠이 들기라도 한 걸까요? 다람쥐는 쭈르르 나무 위로 올라가 큰 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안! 념! 하! 세! 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람쥐는 고개를 가우뚱거렸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많은 나뭇잎을 달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살아있는 나무가 맞는데 왜 도통 말이 없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말이 없지? 안 들리나?”

“바보야! 그 나무는 말을 못해.”

“바보! 바보!”

어느 틈에 나타났는지 참새 떼가 가지에 나란히 앉아서 다람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다쟁이 참새들이 짹짹 서로 질세라 말을 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그랬대.”

“맞아. 맞아. 어른들이 그랬어.”

“말만 안 해? 열매도 맺지 않는 걸. 다른 나무나 찾아봐.”

그리고 보니 잎은 많은데 열매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무는 내버려두고 어서 열매가 많이 달린 나무를 찾아야 할 텐데… 다람쥐는 어쩐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람쥐는 참새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왜 말을 못하게 됐대?”

참새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짹짹 앞 다투어 말을 했습니다.

“몰라. 몰라.”

“어른들이 그러는데 전쟁이 있고나서부터 말을 안 한대.”

“열매도 안 맺고!”

“전쟁 때 아주 뿌리 채 뽑혀버리고 말았대. 살아난 게 용하지.”

“맞아. 어른들이 그랬어.”

그리고 보니 은행나무의 울퉁불퉁한 뿌리가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뿌리들의 상처는 아픈 과거를 말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람쥐는 은행나무의 몸통에 귀를 대어봤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웅웅하고 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건 꼭 노래 소리 같기도 했지요. 다람쥐는 은행나무가 바로 그 기억나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는 기억나무이니, 어쩌면 그 날의 기억이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말을 못하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기억나무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다람쥐는 눈을 감고 은행나무에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눈앞에 노란 불빛이 가득해지더니 거짓말처럼 마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막 아침이 찾아온 어촌 마을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곧 하늘을 찢는 듯 끔찍한 소리가 들리더니, 비행기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내 마을에는 폭탄이 떨어지고 집들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불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마을 곳곳을 옮겨 다니며 커졌습니다. 초가집들은 순식간에 타버렸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돼!”

다람쥐가 고개를 세차게 흔들자 마을의 모습은 연기처럼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너희들도 봤어?”

다람쥐의 말에 참새들이 모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뭘?”

“뭘 봤냐는 말이야?”

“예전에 여기 있던 마을 모습 말이야.”

참새들은 다람쥐가 말할 틈도 없이 짹짹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마을이 없어진지가 언젠데!”

“다람쥐는 바보야!”

“바보! 바보!”

“뭘야? 이 녀석들이 왜 자꾸 바보라고 하는 거야!”

다람쥐는 약이 올라 나무 위로 쭉쭉 쫓아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참새들도 포르르 날아올랐지요. 멀리 멀리 날아가면서 짹짹 우는 소리가 바보 바보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다람쥐는 한참을 약이 올라 바라보았지만 하늘을 나는 녀석들을 어찌해볼 도리는 없었습니다.

“다람쥐야! 다람쥐야!”

그때 어디선가 다람쥐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개미 새끼 하나 보이지 않았지요.

“이상하다. 분명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다람쥐야! 여기야!”

다람쥐는 깜짝 놀라 눈이 동그라졌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은행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야! 여기! 내 목소리 들리니?”

“기억나무님?”

“기억나무?”

“네.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나무라고 들어세요.”

기억나무가 웃고 있는지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지 은행잎이 후두두둑 떨어졌습니다. 다람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기억나무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니야. 나는 소리 내어 말하는 법은 잃었지만 마음의 소리로는 언제든지 말할 수 있단다.”

마음의 소리라니. 다람쥐의 눈이 동그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기억나무의 소리는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텔레파시처럼 머릿속으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참새들이 하는 말은 신경 쓰지마.”

다람쥐는 기억나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암튼 넌 참 신기한 꼬마구나. 가끔 마음의 소리를 듣는 친구들은 있지만 기억을 본 건 네가 처음이야.”

아까 봤던 모습을 말하는 건가. 다람쥐는 무서웠던 광경이 떠올라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기억나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런 기억을 보게 해서 미안해. 내가 소리 내어 말하지 못하게 된 건... 아마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던 날, 도와달라고 너무 소리쳤기 때문일 거야.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듣지 않았지. 이 주변에는 온통 나의 아이들과 가족들이 살고 있었거든. 마을 사람들도 어릴 때부터 봐왔던 가족 같은 이들이었는데...”

기억나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나무들이 전쟁을 기억할 때 처럼 슬프고 괴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내 안에는 모든 기억들이 들어있단다. 인천상륙작전이 펼쳐지기 전, 숨어있는 북한군들을 없애기 위해 마을에 무차별적인 폭탄을 떨어뜨리던 그날들까지도 말이야.”

“그런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사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일 것 같아요.”  
다람쥐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땅 위로 드러난 나무의 상처 투성이 뿌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아플 것만 같은 큰 상처였습니다. 나무는

다람쥐를 위로하듯 나뭇잎으로 머리를 쓰다듬어주었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다시 내 기억을 들여다보겠니?”

아까의 끔찍했던 모습을 생각하니 조금 무서웠지만 기억나무의 다정한 목소리에 용기를 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나무의 몸통에 귀를 대어봤습니다. 그러자 눈앞에 노란 불빛이 가득해지더니 다시 아름다운 마을이 보였습니다.

마을 주변에는 아름다운 은행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져있었습니다. 항구에는 배들이 즐비하고, 마을 사람들은 물고기도 잡고 농사도 지으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지요. 마을 곳곳의 은행나무 밑에는 노인들이 모여 앉아 쉬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마을 곳곳의 나무들도 행복해보였습니다. 아이들은 깔깔대며 마을과 월미숲 여기저기를 쏘다니고 있었지요. 마치 다람쥐처럼 말입니다.

커다란 은행나무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못해서 끔꿍대는 꼬마도 있었고, 은행나무 열매를 밟고는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우는 꼬마도 있었습니다. 다람쥐는 자기도 모르게 빙그레 웃었습니다.

“봤지? 내 안에는 즐겁고 행복한 기억들이 더 많아. 전쟁이 있기 전의 행복하고 평화로웠던 모습 말이야. 특히 아이들은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도 웃음이 나와.”

은행나무의 말이 끝나자마자 노란 은행잎이 후두둑하고 다람쥐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다람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은행나무는 한숨을 쉬고는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격에 목숨을 잃었지.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쟁을 피해 흩어졌어.”

“하지만 전쟁이 끝난 지 한참 되었잖아요?”

“마을 사람들은 몇 번이고 돌아오려고 했지만 돌아올 수 없었지. 군인들이 이곳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군인들도 떠났으니 사람들도 곧 돌아올 거야.”

“정말요?”

일어나나무와 꼬마가 만나게 될까라는 기대에 다람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한동안은 이곳에 아무도 오지 못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 그 중엔 옛날 이 근처에 살던 사람들도 있어. 많이 나이가 들었지만 알아볼 수 있어. 저기 햇볕을 쬐고 있는 꼬부랑 할머니가 보이지?”

벤치에는 할머니가 눈을 감고 앉아있었습니다.

“어릴 때 내 은행 열매를 밟고 울던 꼬마가 바로 저 꼬부랑 할머니란다. 저기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할아버지는 숨바꼭질만하면



내 가지 위로 올라와 숨어있던 녀석이고. 너를 보며 웃고 있는 저 꼬마는... 옛날에 내 가지를 꺾었다가 엄마한테 혼이 났던 그 녀석을 똑 닮았어. 아마도 그 손자가 아닐까?”

기억나무는 그 후에도 한참 동안 공원 곳곳에 있는 사람들의 옛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점잖은 체하고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에게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게 우스워서 다람쥐는 한참을 웃으며 들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를 늘어놓던 은행나무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지요.

“항구며 도시며 먼 곳까지 돌아다니는 비둘기들이 그랬어. 곧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고 이곳에 마을도 다시 생길 거라고. 그때가 되면 나도 다시 소리 내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열매도 맺고 말이야. 마을 곳곳이 은행나무로 뒤덮이게 말이지.”

나무의 명랑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정말 그렇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잘 될 것만 같았지요. 어쩐지 한결 기분이 가벼워졌습니다. 환하게 웃는 은행나무를 보니 다람쥐의 마음도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마치 마음속에 노란 은행나무 한 그루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서글픈 일도 걱정되는 일도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이야기 7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친구나무





## 이야기 VII

###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친구나무

“그러니까... 기껏 거기까지 가서 열매 모을 생각은 안 하고 이야  
기만 실컷 듣고 왔다는 거야? 냄새 나는 은행나무 열매만 잔뜩 가  
져오고? 너같이 작은 녀석은 은행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것도  
몰라?”

다람쥐에게 기억나무의 이야기를 듣던 상수리나무가 혀를 차며  
물었습니다. 다람쥐는 머털 굴적거리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기억나무에게 들었어요. 하지만 먹으려고 가지고 온 게  
아닌 걸요.”

“먹을 것도 아닌데 왜 가지고 왔단 말이야?”

상수리나무는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은행나무가 숲 이곳저곳에 좀 더 많이 있었으면 해서요. 여기서  
기 물어볼까 해요.”

헤헤거리며 웃는 다람쥐의 모습에 상수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정말 못 말리는 녀석이야.”

“아저씨! 대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상수리의 잔소리가 시작될까 다람쥐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름을 지었어요.”

“내 이름? 왜? 내 이름은 심술나무라고 하더니.”

상수리나무가 관심 없다는 듯이 굴었지만 다람쥐는 웃으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아저씨는 심술나무가 아니에요. 아저씨 이름을 새로 지은 걸요.”

“내 이름이 뭔데?”

“친구나무요.”

“누가 네 친구야?”

상수리나무는 친구나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괜히 또 쑥스러워서 심통을 부렸지요. 하지만 이제 다람쥐도 그 정도 심통에는 꿈쩍도 하지 않지요.

“생각해봤는데, 아저씨한테는 그 이름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 말고도 다른 다람쥐나 동물들이나, 사람들까지도 다 아저씨를 좋아하잖아요. 매일 심술만 부려도 아저씨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걸 다들 알고 있다고요.”

다람쥐가 배설 배설 웃으며 말하자 상수리나무는 비밀이라도 들킨 것처럼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래서 말을 돌렸지요.

“실없는 소리는. 그래서 겨울잠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잘 데가 없다면...”

“당연히 아저씨 옆에 있어야죠. 내가 어디 가겠어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

상수리나무는 자기 말을 기다리지도 않고 당당하게 대답하는 꼬마 다람쥐가 기가차서 웃었습니다. 너무 당당해 알미운 생각이 들기도 했지요. 그래서 다람쥐를 주려고 몰래 도토리들을 모아놓은 것은 당분간 비밀로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저씨! 부탁이 있어요.”





“뽀뽀한 녀석! 또 무슨 부탁이야!”

다람쥐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나한테 자꾸 녀석이니 꼬마니 하는 건 별로인 것 같아요. 나도 이름을 지어주세요.”

상수리, 아니 친구나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전부터 생각해놓은 이름들이 몇 가지가 있었지만 영 마음에 딱 드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녀석 참 귀찮게 하기는…”

“또 녀석!”

다람쥐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상수리나무가 입맛을 다시더니 말했습니다.

“네 녀석 이름은 어우리가 좋겠구나.”

“어우리요?”

“옛날 이 월미도의 이름이 어을미도였단다. 지금은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섬이 아니 게 되어버렸지만, 그때는 바닷물이 감싸고 있는 섬이었거든. 그 모습이 바다가 마치 섬을 어우르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 너도 비슷하게 어우리가 어퍼니?”

“맘에 들어요! 너무 예쁜 이름이에요.”

다람쥐, 아니 어우리는 함박웃음을 지으며 상수리나무를 끌어안았습니다. 사실 어우리라는 이름에는 사랑스럽다는 의미도 숨어 있었지만, 상수리는 그 얘기는 하지 않을 셈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간 천방지축 어우리 녀석이 너무 신나하지 않겠어요? 어느새 밤이 찾아온 월미산은 추웠지만 둘이 같이 있으니 하나도 춥지 않았습니다. 달님도 따뜻한 달빛을 담백 뿌려주었지요.

## 어우리의 월미산모험

---

발행일	2018년 9월 10일
발행처	인천광역시 중구청
기획 및 디자인	매스씨앤지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30 4층 02-3153-7070
문의처	인천광역시 중구청 관광진흥실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032-760-6480
등록번호	54-3490000-000085-01